제 5 강 무의식의 초월적 종합 1

◆ 해석의 대상으로서의 무의식

※ 학습목표
무의식을 해석의 대상으로 보는 정신분석학을 이해한다.

▲ 무의식의 기계적 작동
무의식적 욕망이 기계처럼 작동한다는 것은 사실 별 뜻이 없습니다. 욕망은 작동할 뿐 뭔가를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 무의식은 뭔가를 의미하지 않고 다만 이어 붙게(접속)하고 달라붙게(이접)하며 모아 붙게(통접)하는 용법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은 의미에 관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 usage 에 관한 문제만을 제기한다" 이것이 고전주의 표상의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서 탄생한 새로운 과학의 질문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과학에서 해석학으로
프로이트는 「과학적 심리학 초고」(1895)에서 '의미'에 관한 물음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자극을 유도하는 표상(관념)의 의미가 무엇인가보다 자극의 양이 뉴런을 어떻게 흥분시키고 그 흥분양이 어떻게 이동하며 방출되는가 하는 기계적 작동원리가 선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심리학을 처음으로 적용한 『꿈의 해석』(1900)에 와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무의식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이 <무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바뀐 것입니다. 「과학적 심리학 초고」의 첫 문장이 "이 「초고」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심리학을 자연과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인데 반해 『꿈의 해석』의 첫 문장은 "나는 꿈을 해석하는 것을 가능케 하게 심리적 기법이 있다는 증거를 밝힐 것이다"입니다. 꿈은 "의미 깊은 마음의 소산"이며, 자신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심리적 기법"을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은 이렇게 무의식을 해석의 대상으로 옮겨 놓으면서 탄생했습니다. 해석한다는 것을 무엇일까요? 드러난 현상에서 숨어 있는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해석학이 드러난 말(성서)과 징후들에서 신의 숨은 뜻을 밝히는 것처럼 무의식의 해석학을 자임하는 정신분석학은 드러난 현상들(자유연상, 꿈, 증상, 실수행위 등) 너머에 있는 잠재적 사고와 무의식적 소망을 밝힙니다. 해석학이 신학에서 비롯된 것처럼 무의식의 해석학 역시 형이상학을 지향합니다.

▲ 선험과 초월
앞장에서 우리는 무의식의 세 가지 종합을 살펴보았습니다. 욕망하는 생산의 종합형식으로서의 그 무의식과 이제 경험적 현상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해석의 대상으로 설정된 무의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무의식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은 여전히 욕망의 종합 형식입니다. 문제는 칸트의 말처럼 종합의 능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느냐 부당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의식의 종합들의 정당한 사용과 부당한 사용을 구별하기 위해 인식에 내재하는 기준들을 발견하고자"(118)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감각적 질료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관의 형식으로 포착하고 상상력으로 도식화하여 지성의 범주로 정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적 인식의 과정이 종합입니다.
그런데, 직관, 상상, 지성의 종합 형식들은 인식에 내재하면서도 경험의 바깥에 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경험 바깥에 있으면서, 경험적 인식에 내재하며,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순수 형식(기준)을 선험적(transcendantale) 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험적이라는 말은 인식의 경험 외적 조건이나 기준이 인식에 내재한다는 말입니다. 칸트의 선험철학이 겨냥하는 것은 형이상학 비판입니다. 형이상학은 인식에 내재하는 기준을 인식할 수 없는 세계, 즉 '물자체'의 세계로까지 확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적 현상계의 '구성'에 사용해야 할 지성의 종합 능력을 현상계 너머의 세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때 형이상학이 출현합니다.

▲ 형이상학적 가상
가령, 'A 는 B 이다'(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다)는 정언명제를 대전제로 삼는 정언적 삼단논법의 극한에서 더

이상 다른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는 궁극적이고 무제약적인 주어에 도달할 때 '자아'(영혼)라는 형이상학적 이념이 발생합니다. '자아'란 이렇게 정언명제에서 항상 주어일 수만 있고 술어일 수는 없는 무제약적 주관(주어)에 실체성을 부여한 형이상학적 '가상'입니다. 프로이트는 생물학(진화와 물질대사의)의 최소 단위인 '유기체'(세포) - 이것도 하나의 형이상학적 가상일 뿐인데 - 를 정신(심리학)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여 '자아'라는 심리적 주체를 도출합니다.
두 번째, 'A 가 B 이면, B 는 C 이다.'(내가 생각을 한다면, 나는 존재한다)는 가언명제를 대전제로 삼는 가언적 삼단논법의 극한에서 더 이상 '...라면'이라는 전제가 필요 없는 무제약적 전제에 도달할 때 '세계'라는 형이상학적 이념이 발생합니다. 항상 앞선 전제에 의존해 있는 현상계의 객체들을 묶어서 무제약적인 통일성을 주는 형이상학적 가상이 '세계'입니다. 생물학은 생태계의 사슬 속에서 서로 의존해 있는 외부 세계를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이트는 이 생물학의 '환경'을 심리학에 투사하여 자아의 외부 환경으로서 '현실'이라는 개념을 도출합니다.("현실원칙")

◆ 프로이트의 신화적 상징주의

※ 학습목표
프로이트의 신화적 상징주의를 이해한다

▲ 형이상학적 가상
세 번째, 'A 는 B 이거나 C 이다'(나는 사람이거나 꽃이다)는 선언명제를 대전제로 삼는 선언적 삼단논법의 극한에서 더 이상 다른 것의 한 부분으로 종속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모든 부분들의 궁극적인 집합이 되는 무제약자에 도달할 때 '신'이라는 신학적 이념이 발생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부분들로 분석되지 않으면서 현상계의 모든 선언지(부분)를 포함하는 주어에 붙여진 이름이 '신'입니다. '신'이라는 이념은 '완전성'을 본질로 하므로 완전성에는 '존재성'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술어적 제약도 받지 않는 무제약적 주어로서의 신은 또한 모든 현상적 존재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의 궁극적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프로이트는 처음부터 존재하며 모든 심리적 갈등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이 신학적 이념에 '아버지'를 설정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 욕망의 표상: 신
쉬레버의 욕망생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표상은 '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가 기관-기계들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낄 때(편집증 기계) 그것을 '신의 박해'로 표상했으며, 반대로 빛살을 끌어당겨 모든 세상의 기관들을 창조하는 것처럼 느낄 때(기적 기계) 그는 상위신(아리안 종처럼 피부가 하얀)과 하위신(유대인처럼 피부가 어두운)이 뒤에 있고 앞쪽에는 정화된 영혼들이 거주하는 천상의 신전을 표상했으며, 홀로 즐기면서 새로운 인종을 창조하는 것처럼 느낄 때(독신기계)는 자신을 '신의 여자'라고 표상했습니다. 그밖에도 제수이트파, 슬라브인, 독일인, 프랑스인 등 무수한 인종적, 민족적 표상(망상)들이 그의 <기관 없는 신체> 표면을 지나갑니다. 들뢰즈-가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표상들의 의미가 아니라 그 표상들의 생성과 연쇄를 지배하는 욕망생산의 기계적(물질적) 원리입니다.
쉬레버의 욕망생산은 두 극한 사이를 왕복합니다. 한쪽 극은 인종주의적 표상(유대인, 아리아인, 독일인, 슬라브인)을 결부시키는 편집증적 생산의 원리이고, 다른 쪽 극은 독신자, 여성의 표상을 결부시키는 분열증적 생산의 원리입니다. 편집증적 욕망생산은 분자적 입자로 몰적 군집을 구성하는 것이고, 분열증적 생산은 몰적인 군집조차 분자적으로 운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쉬레버는 인종주의적 '신'의 표상과 빛살의 분자적 입자라는 두 극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 아버지의 대체표상: 신
프로이트는 쉬레버의 '신'을 아버지의 대체표상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해석학적 추리과정은 이렇습니다. '쉬레버의 망상 속에서 쉬레버를 박해하기도 하고, 쉬레버에게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쉬레버를 여성화시켜 사랑해줄 남자가 누구인가? 가까이로는 쉬레버를 치료한 의사 플렉지히이며 멀리는 아버지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던 프로이트는 쉬레버의 자서전에서 "나의 아버지와 형에 대한 기억은…나에게는 신성한 것이다"(「편집증 환자 쉬레버」, 327)는 한 구절을 발견하고는 모든 망상의

원인이 아버지에 대한 억압된 (동성애적, 수동적) 사랑에 있었다고 결론짓습니다. 이 '아버지'의 원인은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망상의 세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끌어들일 필요가 없는"(「편집증 환자 쉬레버」, 331) 해석학적 '가상'입니다.
설명력만 가지면 존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여전히 '과학적'인 가상(가설) 개념이 쉬레버의 실제 아버지와 상징적 아버지를 통해 '증명'될 때 그것은 이미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믿음이 되어 버립니다. 먼저, 이미 오래 전에 죽은 법원장 쉬레버의 아버지 닥터 다니엘 고트랍 모릿츠 쉬레버(Dr Daniel Gottlob Moritz Schreber)가 아들 쉬레버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버지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이트는 닥터 쉬레버가 '쉬레버 협회'에 이름을 남길 만큼 위대한 의사였음을 거론합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잘 조화된 성장을 권장하고, 집과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조정하도록 하고, 또 좋은 건강상태를 위해 체육과 노동을 장려하는" 활동으로 독일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의사였는데 "이런 아버지라면 아버지와 너무 일찍 사별했던 그의 아들이, 다정했던 기억 속에서 그의 아버지를 신으로 변형시킨 것이 무리가 아니다"(「편집증 환자 쉬레버」, 332)라고 합니다.

▲ 닥터 쉬레버의 아동교육법
닥터 쉬레버의 아동교육법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동들이 자위행위로 인해 신체를 탕진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 대신 체육과 노동을 통해 건강한 독일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 만든 것이 "근육을 바르게 하는 철판, 그리고 턱을 바르게 하는 철 막대가 달린 자세 교정 띠 같은" 교육적 고문 도구였습니다.(437. 각주 16 번) 19 세기 초반 잘라드-라퐁이 만든 가죽 혁대와 비슷한 것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금속의 흉갑이 성기부분을 가리고 있는데...이 혁대는 1 주일 동안 맹꽁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다."[1] 만약 아들 쉬레버의 무의식에 아버지 슈레버가 어떤 영향을 남겼다면 그건 독일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국민 교육주의, 반자위주의(이 모든 것의 결정판으로서 독일 파시즘)의 창시자 닥터 쉬레버입니다. 해석학적 가상에 역사적 실증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만 거세위협의 정당성("조화된 성장", "좋은 건강상태")이라는 프로이트 자신의 정치적 신념(아이들을 건강한 독일국민으로 키우기 위해 그들의 자위행위를 감시하라!)을 드러낸 꼴입니다.

▲ 프로이트의 신화적 상징주의
두 번째로 프로이트는 쉬레버의 신이 아버지의 대리표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화적 상징주의로 되돌아갑니다. 쉬레버의 항문에 연결된 빛살이 아버지의 상징이라는 것은 여러 신화가 증명한다고 합니다. 비록 독일어에서 해(die Sonne)는 여성형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다른 언어에서 해는 남성"이고 "부모를 자연에 비유할 때 해에 상대되는 것은 어머니 대지"이기 때문이랍니다. 프로이트는 논문의 '후기'에서 따로 "아버지-상징의 승화된 표상으로서의 해"에 보편적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화적 상징을 뒤집니다. 높은 곳의 독수리나 선조의 영혼이 깃든 토템은 모두 아버지-상징이랍니다. "꿈과 노이로제에서 우리는 아이뿐만 아니라 야만인, 즉 원시인도 만나게 된다"(「편집증 환자 쉬레버」, 369) 이렇게 무의식은 욕망생산의 주체적 원리가 아니라 유아기나 태고적의 표상원리가 됩니다. 쉬레버의 주체적 욕망생산은 온데 간데 없고 신화적 상징에서 객관적 권위를 부여받은 고전주의 표상의 극장만 남게 됩니다.

▲ 아버지의 이름
그나마 프로이트는 상징주의적 해석(계통발생적 유전)을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 개인적 차원의(개체 발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빈틈을 메우는 데만 사용했지만 자크 라캉은 아버지-상징의 기능을 구조적 상수로 승격시켰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실재의 아버지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재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가 하는 상징적 기능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 아이에게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아버지가 뭐라 하시겠니?' '네 아버지라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아이에게 "자신을 넘어선 권위와 자신의 소망을 넘어선 이상"[2]으로서 '아버지'라는 '이름'(nom)을 언급한다면 아이에게 아버지의 기능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재 아버지가 있어도 엄마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이와의 2 자적인 밀착관계를 유지한다면 아이의 무의식에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이의 (상상적) 2 자 관계를 분리시키는 아버지의 (상징적) 기능(non!: 안돼!)은 어머니의 욕망 너머에 있는 권위의 상징이 작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입니다. 라캉은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적 관계를 금지하는 기능과 어머니의 욕망을 그 너머의 상징적 권위로 대체하는 기능을 동시에 지시하기 위해 불어에서 non(안돼!)와 nom(이름)의 발음이 같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아버지의 안돼![non-du-père]는 아버지의 이름[nom-du-père]을 통해 작동합니다.

1) 미셸 푸코, 박정자 역, 『비정상인들』, 동문선, 2001, 301 쪽.
2) 브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142 쪽.

◆ 아버지의 부재

※ 학습목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동성애

▲ 배제된 아버지의 이름
라캉에 따르면 정신병은 이 아버지의 이름이 주체의 정신세계에서 아예 배제(forclusion)되었을 때 생깁니다. 그에 따르면 무의식은 신경증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억압(refoulement)됨으로써 형성됩니다. 억압된 이름이 의식으로부터 소외된 독자적인 표상(사고) 작용을 일으킬 때 그렇게 형성된 표상(사고)의 질서가 무의식이 됩니다. 정신병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예 배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의식과 분리된 독자적인 사고나 표상질서로서의 무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신경증자에게는 무의식이었던 것이 정신병자에게는 의식적 표상 자체(환각, 망상)로 펼쳐집니다.
정신분열증자가 '정상인'과는 다른 문법의 언어를 구사하거나 언어를 사물(실재)처럼 사용하는 것도 한 사회의 언어 질서를 틀 짓는 아버지의 이름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는 독자적인 세계와 언어를 구축합니다. 쉬레버의 신학적 망상과 '근본언어'[3]가 그런 것입니다. 라캉은 아버지의 이름이 지닌 이런 상징적 권위를 '좋은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아예 배제된 정신분열증은 더 나쁜 것으로 봅니다.[4]
'죽거나 나쁘거나!' (이접의 배타택일적 사용: 이중구속)

▲ 부재하는 아버지
프로이트의 저작에서 '아버지'의 오이디푸스적 기능이 신경증의 '핵을 이루는 콤플렉스'로 제시된 텍스트는 「매맞는 아이」(1919)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오이디푸스의 제국주의가 부재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94)는 사실입니다. 신이 그런 것처럼, 오이디푸스의 세계에서 아버지는 부재함으로써만 자신의 부성적 기능을 다합니다. 이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무의식의 초월적 종합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신은 경험적 현상계에는 부재함으로써, 경험세계 너머의 초월적 가상으로서만, 경험적 현상계를 지배합니다.
이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들이 자주 보고하는 <아이가 매를 맞는다>는 환상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분석합니다. 그는 여자아이의 계열과 남자아이의 계열을 나누고 두 계열마다 환상이 전개되는 단계를 구분합니다. 먼저, 여자아이의 계열은 세 단계를 갖습니다. 첫째 단계의 환상에 대해 여자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맞고 있어요>라고 보고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는 결코 의식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생님이나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대신한 어른이 남자아이들을 때리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건 확실히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과 연관된 의식적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때려주는(때려준다는 것은 사랑해준다는 것의 부정적 표현입니다. 메저키즘!) 때리는 자가 명확히 아버지로 나타나는 단계는 오직 두 번째 단계뿐인데, 이 두 번째 단계는 또한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단계(왜? 아버지에게 맞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이므로 기억을 통해 상기될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맞는' 단계는 단지 첫 번째 자기애적 가학의 단계(아버지는 내가 싫어하는 동생을 때리고 있어. 나를 사랑하니까. 목적어 부정)와 세 번째 동성애적 피학의 단계(엄마가 남자아이 같은 나를 때려주고 있어. 나를 사랑하니까. 주어 부정)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구성된(요청된) 단계입니다.
물론, 두 번째 <아버지가 여자아이인 나를 때려주고 있어> 역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의 술어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인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는 부재와 부정을 통해서만 표상(환상) 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부정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랑하는 하느님-아버지가 인식의 세계 너머에 존재하며 나의 욕망을 부정하고 억제하는 환상 속에서만 왕림하기 때문입니다.

▲ 아버지 부재! 레즈비언
그럼 여자아이는 왜 억압된 환상 속에서 아버지에게 사랑 받고(매맞고) 싶을까요? 물론, 아버지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아버지의 남근을 선망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아이가 세 번째 환상을 현실화시켜 동성애자가 될

때 여자는 다른 여자에 대해 '남근'이 됩니다. 「여자 동성애가 되는 심리」(1920)에서 프로이트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온 여자 동성애자를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그 레즈비언은 '아버지의 애 낳기' 경쟁에서 어머니에게 지자 아버지(남자)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고 그 대신 자신을 아버지(남근)와 동일화 시켜 어머니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자동성애의 무의식에는 남근 선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남근-소유(선망)에서 남근-되기(동성애)로의 전환 결과 선망하던 아버지(남근)는 배제되고 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결연과 연대가 형성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성 환자(?)가 프로이트에게 '남자의 사랑과 아이를 열망하는' 내용의 꿈을 들려줌으로써 프로이트의 분석을 농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프로이트는 그 꿈이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분석을 포기해 버립니다. 프로이트 스스로 고백하듯이 자신의 성적 도착에 대해 어떤 심리적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는 동성애자에게 정신분석이 해줄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신분석은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 사회의 '정상성'을 수호하는 사법, 경찰 당국과 같은 편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뿐입니다.

▲ 거세의 배타택일적 이접

여자의 <매맞는 환상>이 세 단계로 이뤄지는 데 반해 남자의 매맞는 환상은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여자의 첫 번째 단계 <어떤 아이가 매를 맞고 있다>라는 예비적 단계가 생략되고 그 대신 <나는 아버지에게 맞고 있다>는 환상이 첫 번째 단계를 이룹니다. 여자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이 환상 역시 억압되기 때문에 의식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남자아이들이 어머니나 그 대리자에게 매를 맞고 있다>는 환상입니다. 여자아이의 세 번째 단계와 외형상 - 여자의 경우는 매맞는 아이의 성이 바뀌었는데 남자는 안 바뀌었다 - 일치합니다. 그럼 왜 남자아이는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즉 사랑 받고 싶은 걸까요?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자아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아이에게도 아버지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출발점에서부터 동성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환상은 억압을 통해 형태(주어부정)를 바꿔 '나는 엄마에게 매를 맞는다'는 두 번째 환상을 파생시킵니다. 이 환상은 대상 선택의 측면에서 이성애적이므로 "정상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다만 '사랑받는다'는 술어가 '매를 맞는다'는 술어로 바뀐 것입니다. 이 술어 부정은 물론 억압 때문입니다. 이 술어 부정의 메시지는 '아버지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녀가 나를 때리고 있잖아요'입니다. 이 억압의 원인 역시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근의 부재', 즉 거세 때문입니다. 다만 시제가 다릅니다. 여자아이에게 '남근부재'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남근의 소유(아이 낳기, 남자와 결혼하기)를 미래형으로 바꿉니다.(물론, 이건 '정상적'인 여자의 경우입니다. '비정상적'인 레즈비언들은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근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반해 남자에게 거세는 미래형입니다. '잘릴 지도 모른다'는 거세의 공포가 '어머니의 남근'이기를 포기하고 어머니 같은 '여자를 소유'하게끔 만듭니다.

---

3)「편집증 환자 쉬레버」, 298 쪽. 하늘나라의 앞뜰에는 순화된 영혼들이 거처하는데, 순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신이 사용하는 언어, 즉 근본언어를 배운다. 근본언어는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활기찬 독일어인데, 넌지시 둘러 말하는 표현법이 많은 게 특징이다. 매춘부 Luder 가 한 예이다.

4)『라캉과 정신의학』, 192 쪽. "그는 단지 우리에게 한가지 경고를 할 뿐이다. 아버지의 역할을 배척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상징적인 기능을 전복시키는 것은 이로울 게 없다는 것, 그 결과는 아버지의 기능 자체보다도 더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라캉이 <~이냐, 더 나쁜 것이냐~ou pire>라는 제목으로 시행한 1971 년 『세미나 XIX』에서 말하려고 했던 바이다."